

수질 변화와 생각의 변화까지 함께 이끄는 한국마이옥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서로에게 영감을 얻고 재창조된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다시 태어나는 변화는 늘 새롭고 짜릿하다. 변화를 알리는 기업, 한국마이옥스는 그 짜릿함을 만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액화염소를 이용한 기존의 수돗물 살균방식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MIOX 시스템을 제시한 한국마이옥스는 수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살균소독 시스템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한국마이옥스의 화려한 성공이야말로 변화본능 덕분이 아닐까.

MIOX, 변화의 이름으로

“훈련이나 전쟁 시 야전부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식수 해결이죠. 그렇다고 식수를 계속 공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 지역의 물을 간단하게 정수해서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 시작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LATA(Los Alamos Technical Association)연구소가 미국 국방성과 공동으로 살균소독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MIOX 시스템입니다.”

1994년 MIOX 시스템을 실용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1994년 미국 MIOX사가 설립되었고 2000년 7월 배창만 대표이사는 한국마이옥스를 설립, MIOX의 살균소독 시스템을 국내에 소개하기 시작했다.

“부식억제제를 판매해 오다가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MIOX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저 역시 국내 정수처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죠. 하지만 정수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공부하다 보니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양질의 물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있음에도 기존 정수장이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 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이였다. 또한 미움보다 더 잔인한 것은 무관심이라고 했던가. 배창만 대표이사는 수돗물에 대한 기존





인식을 버리지 못한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가장 큰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편견과 무관심, 이 둘을 상대하기 위해 사업 초기에는 전 국민과 정수 관련 종사자들을 상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오직 발품으로 제품 홍보를 시작했다.

“냄새와 맛까지 개선하는 마이옥스의 기술력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포천과 하동, 영월 등에서 MIOX 혼합산화제 발생장치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영장 살균소독 시스템을 전주학생수영장, 부천소사체육관 등의 수영장에 설치해 다시 한번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염소 투입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화성시 광역 5단계 화성 1분기, 전주권 황등 조절지, 충남권 논산·홍산 배수지와 제천시 재염소, 인천광역시 영종도 재염소 등에 설치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는 MIOX 제품이 설치된 곳의 정수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웹화상 운영감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수처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시

30%, 50%, 85%. 이들 수치는 한국마이옥스에서 공급하는 MIOX 혼합산화제 발생기에 관한 것들이다. 다른 염소나 차아염소산 나트륨보다 잔류성이나 소독력이 30% 이상 좋기 때문에 사용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독

부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트리할로메탄도 MIOX를 사용했을 때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85%란, 영월 정수장에 MIOX를 설치한 후 ‘예전의 물맛과 비교해 냄새도 사라지고 맛도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85%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수치이다.

“기존에 우리가 물을 살균하기 위해 사용하던 액화염소가스는 고압의 독성가스로서 관리가 어렵고, 사고발생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사용이 중지된 약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배제시키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MIOX 시스템의 혼합산화제(오존+이산화염소+차아염소산) 현장 발생기다. 염소계와 산소계를 동시에 발생시켜 위험성이 없는 데다 정수장 및 배수지의 소독 공정 및 재염소 투입설비로 적합한 차세대 살균소독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특히 MIOX 시스템은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으로 세계 29개국의 특허 및 미국 EPA 등 유관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 제품이기도 하다. 수도물의 가장 커다란 불신요인 중 하나인 소독약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할 만하다.

더 좋은 물맛과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부지런히 정수장을 찾아다니야 할 것 같으며 웃음 짓는 배창만 대표이사의 미소 속에서 대한민국 물맛의 표준을 가늠해 본다. 